

# 『東人詩話』의 간행과 대일본 유출\*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Dongin-Siwha* and  
Its Spread from Korea to Japan

오 용 섭 (Oh, Yong-Seob)\*\*

##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유출경위         |
| 2. 『동인시화』의 간행 | 3.2 간행과 저본       |
| 2.1 초간본       | 4. 판본의 특징과 기타 간본 |
| 2.2 중간본       | 4.1 서지적 특징       |
| 2.3 중간 수정본    | 4.2 기타 간본        |
| 2.4 중간 번각본    | 5. 결 언           |
| 2.5 책판의 망실    | <참고문헌>           |
| 3. 대일본 유출과 간행 |                  |

## < 초 록 >

『동인시화』는 초간(1477), 중간(1639), 중간 수정(1639~64), 중간 번각(1664) 등 4차례의 간행이 있었다. 그러나 중간 당시 온전한 초간본을 저본으로 삼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간본은 김수온과 양성지의 글이 합성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후 중간 수정본에서는 이를 바로 잡았지만 중간 번각본에서는 오류가 있던 중간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류는 다시 발생되었다. 이 글에서는 오류의 발생과 수정사실, 간행 회수, 판본간 편성의 특징, 대일본 유출과 간행, 일본 간본의 저본 등을 살폈다.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要語: 『동인시화』, 서거정, 강희맹, 김수온, 최숙정, 양성지, 박시형, 이필영, 이상일, 이명빈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3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cheon.ac.kr)

접수일: 2014년 9월 11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Dongin-Sihwa* was published four times in Korea: first edition (1477), second edition (1639), third edition (revised second edition, 1639~64) and fourth edition (1664). In 1687, Kikuchi-houmei (菊池鵬溟) was published in Japan based on the manuscript from Lee Myoungbin.

However the publishers did not obtain the original first edition during the process. Thus the erroneous second edition had both Kim Soo-on and Yang Seong-ji's prefaces mixed together. Since then, the publisher of the third edition (revised second edition) noticed the mistakes in the second edition and corrected them all. But the fourth edition again contained the previous mistakes as it was based on the second edition.

This paper closely investigates the four editions of *Dongin-Sihwa*, its mistakes, revisions an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separate editions. It further discusses its spread from Korea to Japan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Japan edition. These new facts will help many researchers of this field.

Key words: *Dongin-Sihwa*, Seo Geo-jeong, Kang Hee-maeng, Kim Soo-on, Choi Sook-jung, Yang Seong-ji, Park Si-hyoung, Lee Pil-young, Lee sang-il, Lee Myoung-bin

## 1. 서 언

『동인시화』<sup>1)</sup>는 성종 5년(1474)에 徐居正(1420~1488)이 신라이후 고려, 조선 초기까지의 명인들의 시를 모아 품평한 상하 2권의 詩話集이다.<sup>2)</sup> 강희맹은 서문에서 “문사의 아름다움을 취했을 뿐 아니라 世敎의 뜻을 유지하는 것으로 근본으로 삼았다.”<sup>3)</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훌륭한 시문을 모아 품평함으로써, 현대 시문학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적인 목적도 고려하여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자신만의 시론의 부족하다거나 “창조의욕을 둔구어 주는 新意論이 全滅”<sup>4)</sup>되어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순수시화집의 백미<sup>5)</sup>이자 비평문학사로서의 가치가 특출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곧 “우리나라 시학을 조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면서 “우리나라 詩學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한 것”<sup>6)</sup>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학자도 “중세기 시문학분야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발전의 빛나는 수확이자 귀중한 민족문화 유산의 하나”<sup>7)</sup>라며 최고의 평가를 아끼

1) 別本계통의 『東人詩話』도 전한다. 이규보의 白雲小說부터 東人畫格까지 수록된 편자미상의 별본에 대해서는 일찍이 趙鍾業 교수가 “동인시화 연구” (『大東文化研究』 2집(1966. 6), 38-39)에서 소개한 일이 있다.

“別本東人詩話,” 『域外漢籍珍本文庫』 第2輯 集部, 第34冊 (重慶: 西南師範大學, 2011), 245-276.

2) 최숙정은 “우리 동방의 시학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에서 성행하였고, 조선에 와서는 극치에 이르렀다.”(崔淑精, 『東人詩話後序』. “吾東方詩學, 始於三國, 盛於高麗, 極於聖朝.”)고 하였다.

3) 姜希孟, 『東人詩話序』, “不徒, 取其文詞之美, 隱然, 以維持世敎爲本.”

4) 趙鍾業, “동인시화 연구,” 『大東文化研究』 2집(1966. 6), 24.

5) [趙鍾業], “동인시화해제,” 『한국시화총편』: 제1권 (서울: 동서문화원, 1989), 156.

6) 박성규, “[동인시화]해제,” 『동인시화』 (서울: 집문당, 1998), 17. ;

박성규, “동인시화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해제집』: 2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9), 291.

7) 정확모, “동인시화에 대하여,” 『동인시화』 (김찬순 역,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66), 6. 이 책에는 선별된 국역문과 원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서문이나 발문은 강희맹의 것만 권두에 수록되어 있다.

지 않는다.

일찍이 일본의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863~1957)는 조선본은 보지 못하고, 일본간본만을 보고서도 “『역옹패설』과 어깨를 함께 할만하다.”<sup>8)</sup>하였고, 또 근자에 장보웨이(張伯偉)는 “시화라는 제명의 저작 중에서 한국시화 역사상 최고 저작의 하나”<sup>9)</sup>라는 등 『동인시화』에 대한 평가는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견해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동인시화』는 현재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臺本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판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또는 전문적이어서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근자에 필자는 『동인시화』 귀중본을 열람한 것을 계기로 여러 전본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동인시화』의 간행

후대에 『大東詩話』<sup>10)</sup>로도 소개되기도 하는 『동인시화』는 “교훈적인 면과 詩道の 본질을 강조”<sup>11)</sup>하는 詩觀을 가진 서거정이 편찬하였다. 수록된 142則의 내용을 시화, 시론, 시평 등으로 분류해 보면, 시평이 66則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비평에 주안점을 둔 시화서<sup>12)</sup>로 볼 수 있다.

8) 青山仙客(德富蘇峰), “朝鮮의 活字와 珍書,” 『每日申報』(1916년 11월 2일).

德富蘇峰의 號는 青山仙客, 山王草堂主人, 頑蘇老人, 蘇峰學人, 硯研, 桐庭, 氷川子, 伊豆山人 등.

9) 張伯偉, “東人詩話與宋代詩學: 以文獻出典爲中心的比較研究,” 『詩話學』 第5-6合集(대진: 東方詩話學會, 2004), 643-666.

10) 權文海, 『大東韻府群玉纂輯書籍目錄』(『大東韻府群玉』). “大東詩話 徐居正.”; 『增補文獻備考』 卷246, 藝文考5, 雜纂類. “大東詩話 一卷 文忠公徐居正撰.”; 모리스 꾸랑, 李姬載 譯, 『韓國書誌』(서울: 一朝閣, 1994), 228.

11) 장재한, “동인시화해제,” 『동인시화』. 영인본(서울: 경문사, 1980), 8.

12) 박성순, “四佳 徐居正의 詩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90), 15-16.

同年인 강희맹(1424~1483)과 김수온(1410~1481)은 서문 그리고 최숙정(1433~1480)과 양성지(1415~1482)도 글을 보태어 간행을 도왔다. 이 중에서 강희맹, 최숙정, 김수온의 글은 그들의 문집인 『사숙재집』,<sup>13)</sup> 『소요재집』,<sup>14)</sup> 『식우집』<sup>15)</sup>에도 전한다.

『동인시화』의 문학사적인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초간본까지 영인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고,<sup>16)</sup> 이후 『동인시화』의 간행<sup>17)</sup>과 판본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sup>18)</sup> 그러나 아직까지 판본에 대한 식별이 명확하지 않은 탓인지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동인시화』 간본은 1477년에 밀양에서 간행된 초간본, 1639년에 경주에서 간행된 중간본, 이어 수정 보충된 중간 수정본(1639~64) 그리고 1664년에 경주에서 간행된 중간 번각본 등 4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먼저 간행과 책판의 망실에 대해 살핀다.

## 2.1 초간본

『동인시화』는 성종 8년(1477) 4월에 밀양에서 처음 간행되었다.<sup>19)</sup> 초간본의 권두에는 강희맹의 “東人詩話序”와 김수온의 “序”가 있고, 권미에는 최숙정의 “東人詩話後序”와 양성지의 “書東人詩話後”가 있다. 권미에 수록된 글은 지은 시기가 권두의 것에 비해 2~3년의 차이가 있는데 간행직전에 보완된 것으로

13) 姜希孟, 『私淑齋集』 卷8(1805), 『東人詩話序』.

14) 崔淑精, 『逍遙齋集』 卷2(1813), 『東人詩話後序』.

15) 金守溫, 『拭疣集』 卷2末 筆寫補充(간년 미상), 『東人詩話序』.

16) 『한국시화총편』: 제1권 (서울: 동서문화원, 1989), 157-305. ;  
『계간서지학보』 제18집(1996. 9), 107-254.

17) 박성규, “[동인시화]해제,” 『동인시화』 (서울: 집문당, 1998), 8.

“초간본은 1474~1477년, 중간본은 1639년, 세 번째 간행은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가 간행한 신활자본”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다.

18) 남권희, “『東人詩話』의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8집(1992. 12), 379-391.

초간본(1477), 초간후쇄본(계명대 소장본), 이필영중간본(1639), 경주중간본(1639), 갑진경주중간본(1664), 별본 등으로 일컫고, 각 판본의 대교와 본문의 異同을 조사해 놓았다.

19) 梁誠之, 『書東人詩話後』(初刊本 卷末). “遂令鏤梓于密陽府, 傳之不朽云. 府使姓朴諱時衡 … 時成化紀元之十三(1477)年後二月初吉, 南原梁誠之鈍夫謹跋.”

보인다.

완성시기와 간행경위는 위의 네 편의 글을 이어보면 파악할 수 있다. 곧 서거정은 1474년에 강희맹에게 서문을 부탁하였고, 이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김수온에게도 서문을 얻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동인시화』는 1474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성지는 1477년에 서거정과 강희맹에게 간행을 권하였고, 밀양 부사였던 朴時衡이 일을 맡아 완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초간본은 1639년 중간당시 경부부사인 李必榮(1573~?)이 “(초간본은) 수차례의 兵火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마침내 없어질까 두려워 중간한다.”<sup>20</sup>고 한 사실로 보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초간본으로는 보물 제1712호<sup>21</sup>) 지정본과 『계간서지학보』 영인<sup>22</sup>)대본 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2책)<sup>23</sup>)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sup>24</sup>)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일본의 와세다(早稻田)대학 도서관 소장본<sup>25</sup>)이 있는데, 이

20) 李必榮 識. “四佳徐先生, 東人詩話, 屢經兵燹, 存者無幾, 懼終泯沒, 重刊以壽其傳… 崇禎己卯, 陽月下澣, 廣陵後人, 李必榮識.”

21) 경상북도 구미시의 노현영 소장(2011.04.29.보물지정).

22) 임재완, “동인시화 해제,” 『계간서지학보』 제18집(1996. 9), 107-254.

23) 한국학중앙연구원 청구기호(귀227 D5B-3, D5B-3E:후반부 손상).

2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귀 811.1 서거정)은 1474년에 밀양에서 간행된 초간본이다. 오래전에 개장되었으며, 첫째 장 전면 중하부의 손상은 있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하다. 이 책은 강희맹의 서문 등 4편 글의 편성이 특이하다. 곧 다른 초간본과는 달리 권두에는 최숙정(2장), 양성지(1장 ; 2장중의 앞의 1장), 김수온(2장)의 글 등 모두 5장, 권상이 끝난 다음에는 강희맹의 서(3장)와 양성지의 나머지 글(1장) 등 4장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편성순서만 다른 초간본과 다른 것이 아니라 2장 분량의 양성지의 글이 1장씩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원인은 장책할 때 장수에 따라 엮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곧 권두에 편성된 강희맹(제1-3장)과 김수온(제4-5장)의 글도 제1장부터 시작되고, 권미에 있는 최숙정(제1-2장)과 양성지(제3-4장)의 글도 제1장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래서 권두에는 5장, 권미에는 4장의 글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맹자가 장책하면서, 권두에 최숙정(제1-2장), 양성지(제3장), 김수온(제4-5장) 등 5장, 권미에는 강희맹(제1-3장), 양성지(제4장) 등 4장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한 곳에 5장, 또 다른 곳에 4장의 글이 편성되어 장수로 보아서는 다른 전본과 동일하다. 이렇게 양성지의 글을 나누어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실은 1639년 경주에서 이필영이 중간할 때 김수온(전 2장)과 양성지(앞의 1장)의 글이 합성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다.

25) 早稻田大學 圖書館. 請求記号(117 00753).

중 가장 선본이다.

## 2.2 중간본

경주부사 이필영은 중간하기 2년 전인 인조 15년(1637) 6월에 경주부윤이 되어<sup>26)</sup> 그해 8월 4일에 부임하였고, 경진년(1640) 7월 11일까지 재임하였다.<sup>27)</sup> 이 필영이 識를 쓴 시기는 1639년 10월이므로 그가 경주부사로 재직할 당시에 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셈이다. 그런데 그는 경주부사로 부임하기 7년 전에는 밀양군수로 재임하였다.<sup>28)</sup> 이렇게 『동인시화』는 밀양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밀양군수를 역임한 경주부사에 의해 중간되었으므로 간행의 연계성이 보이기도 한다.

중간본이 초간본과 크게 다른 점은 강희맹의 서문 등 네 편의 배열과 편성방식이다. 곧 중간본의 권두에는 강희맹의 “동인시화서”, 최숙정의 “동인시화후서”,<sup>29)</sup> 김수온의 “서동인시화후”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수온의 “서동인시화후”는 김수온의 “서”와 양성지의 “서동인시화후”가 하나로 합성된 글이다. 이렇게 양성지의 “서동인시화후”는 끝부분의 4행이 결락된 채 김수온의 서문 앞에 합성되면서 원저자인 양성지의 이름은 중간본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김수온의 문집에는 잘못된 중간본의 서문이 “동인시화서”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었고,<sup>30)</sup> 日人들의 초기 연구에서도 김수온이 『동인시화』를 펴낸 것이라

26) 『仁祖實錄』 15年 6月 22日. “李必榮, 爲慶州府尹.”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해에 지은 장현광의 제문이 전한다(祭文. “維崇禎十年歲次丁丑(1637)九月初一日丙寅朔二十七日, 壬辰嘉義大夫慶州府尹李必榮謹以菲薄, 之奠敬, 祭于, 旅軒張先生之靈嗚呼哀哉斯文不幸遠禮安仰之, 痛賤子漬綿略伸誰爲之慟嗚呼哀哉, 尙, 饗.”).

27) “府尹李先生案,” 『慶州先生案: 五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272. “府尹李必榮 嘉義, 丁丑八月初四日來, 庚辰七月十一日瓜滿去.”

“講武堂先生案,” 『慶州先生案: 五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479. “府尹李必榮, 丁丑八月日到, 庚辰七月日遄.”

28) 『仁祖實錄』 8年 6月 23日. “都目政事, 吏批 … 李必榮, 爲密陽郡守.”

29)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본에는 이 장이 결락되었음.

30) 金守溫, 『拭疣集』 卷2末 筆寫補充(간년 미상), 『東人詩話序』.

며 全文을 소개<sup>31)</sup>하는 등 오류는 답습되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이필영이 저본으로 삼은 원본이 善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곧 이필영이 “다만 한스러운 점은 원본에 잘못된 곳이 많았으므로 간혹 옛날에 보고 들은 것으로써 자못 지우고 고쳤다.”<sup>32)</sup>거나 “英”, “逐”, “味”, “外” 등 네 글자는 알아 볼 수 없었던지 이 글자가 있어야 할 곳을 비워 둔 사실<sup>33)</sup>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간본에 수록된 강희맹 등 네 사람의 글은 서체와 행자수가 전혀 다르다.<sup>34)</sup> 그러므로 초간본을 원본으로 이용했다면, 합성된 두 편의 글이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두 편을 합성하고, 모두 12행20자로 정서하여 간행하였다. 더욱이 초간본에서는 김수온의 글은 권두, 양성지의 글은 권미에 편성되어 있었다. 후 양성지의 끝 4행이 수록된 마지막 장이 결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편의 글은 서로 합성될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합성되었다는 것은 이필영이 저본으로 이용한 원본은 간본이 아니라 오류가 있던 사본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간본은 국내의 고려대학교<sup>35)</sup> 등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아사미문고<sup>36)</sup> 등에 소장되어 있다. 아사미문고 소장본은 당시 가장 초기간본으로 인식되어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조선고서간행회에서 간행한 신활자본 『동인시화』<sup>37)</sup>의 臺本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해제를 쓴 아사미 린타로우(淺見倫太郎 1869~1943)는 “원본은 자신의 소장으로 이필영의 발이 있는 경주 중간본이며, 마에마

31) 松田甲, “東人詩話의 鰓刻,” 『續日本史話』: 第2編 (京城: 朝鮮總督府, 1931), 165-6.

32) 李必榮, 識. “第恨原本, 多有差舛處, 間或以舊所聞見者, 頗加抹改.”

33) 崔淑精, 東人詩話後序. “合諸家之精□, □節雌黃, 鍼砭膏肓, 如麻姑癢癢, 得□□之味.”

34) 강희맹의 東人詩話序(8행14자, 유계), 김수온의 서(8행14-16자, 무계), 최숙정의 東人詩話後序(8행15자, 유계), 양성지의 書東人詩話後(7행13자, 유계).

35) 만송 D3A13(복본), 대학원 D3 A13.

36)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아사미문고. 청구기호(41.5)

맨 앞의 백지에 시(未程海底千山晴 …)가 필사되어 있고, 마지막 장 후면에도 조선 태조가 潛邸 때 삼각산에 올라 지었다는 시(手攀引蘿上碧峯, 一菴高臥白雲中 …)를 一介가 墨書해 놓았음.

37) “東人詩話 外,” 『朝鮮群書大系』: 第19輯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570-638.

소장본과 비교함에 판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쪽이 신 구판인지 자상하지 않다.”<sup>38)</sup>고 하였고, 아사미와 서로의 소장본을 바꿔 살폈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도 “원본은 아사미본”<sup>39)</sup>이라고 하였다.

## 2.3 중간 수정본

중간본이 간행된 이후 김수온과 양성지의 글이 합성된 오류는 발견되었고, 다시 두 사람의 글을 분리하여 권두에 배열한 중간 수정본이 간행되었다. 중간 수정본은 중간본의 제3-5의 세 장을 다시 새겨 대체하고, 나머지는 중간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3-5의 세 장은 다른 판 보다 이후에 새겼기 때문인지 인쇄상태가 좋고, 서체 역시 다른 장과는 차이가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새긴 세 장은 “동인시화후서”, “서동인시화후”, “서” 등이다. 여기에서 양성지의 “서동인시화후”와 김수온의 “서”는 이전에 합성되어 있었으므로 수정하여 다시 새긴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최숙정의 “동인시화후서”는 왜 다시 새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이 판본의 초기 선본인 아사미문고본에는 “동인시화후서”(제3장)가 결락되어 있다. 아마 제3장이 간행 초기에 손상 또는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때 보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중간본과 중간 수정본의 해당 장은 <사진 1>과 같이 양성지의 글이 분리되어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된다. 다만 김수온의 서문 등 네 편의 글은 지은 시기와 성격에 따라 앞뒤로 나뉘어 편성한 초간본과는 달리 모두 권두에 편성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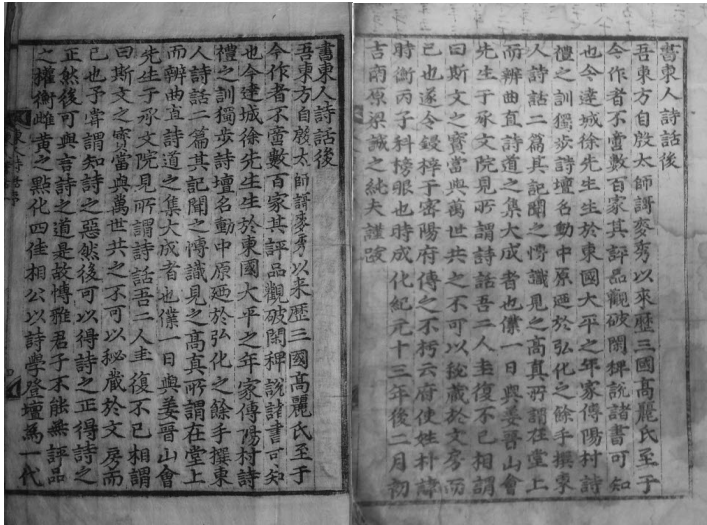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 판본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이것이 중간본의 수정본이라는 사실은 소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선 연구에서는 중간본과 중간 수정본의 간행순서를 반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40)</sup> 곧 양성지와 김수온의 글이 제대로 분리된 중간 수정본이 초간본에 이어 먼저 간행되었고, 이후 두 사람이 글이 합성된 중간본이

38) 淺見倫太郎, 解題, 『朝鮮群書大系』: 第19輯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9-10.

39) 前間恭作, 『古鮮冊譜』 3: タ-フ (東京: 東洋文庫, 1957), 1488. “原本は 淺見本なり.”

40) 남권희, “『東人詩話』의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8집(1992. 12), 385-386.

간행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중간본과 중간 수정본의 두 판본을 대비해보면, 대체된 세 장은 다른 판보다 후대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간 수정본의 간행 시기는 중간한 1639년에서 중간본을 번각한 1664년 사이로 볼 수 있겠다.



<사진 1> 중간본(왼쪽 제4-1장)과 중간 수정본(오른쪽 제3-1장)41)

그런데 1664년에 중간본을 번각할 때는 중간 수정본 대신 중간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중간 수정본의 존재사실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비록 중간 수정본은 수정 또는 보충한 수량이 세 장에 불과하나 이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완전하게 갖추고자 했다는 점에서 간행의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중간 수정본은 국내의 고려대학교 도서관<sup>42)</sup>과 한국학중앙연구원<sup>43)</sup> 일본의 동양 문고<sup>44)</sup> 등에 소장되어 있다.

41) 중간본(왼쪽)은 아사미문고 소장본, 중간 수정본(오른쪽)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42) 고려대학교 도서관. 청구기호(신암 D3 A13).

4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D5B-3B).

## 2.4 중간 번각본

현종 5년(1664) 6월에 경주부에서 1639년에 간행된 중간본을 번각한 판본이다. 중간본이 간행된 지 불과 25년 만에 다시 간행되었다는 것은 중간 책판이 간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목판의 특성상 25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거듭 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간 번각본은 중간본과 마찬가지로 권두에 강희맹의 “동인시화서”, 최숙정의 “동인시화후서”, 김수온의 “서동인시화후” 등 세 편의 글이 배열된 것은 동일하다. 다만 권미제와 간행기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곧 중간본의 권미제는 상권 제28장 후면 제7행 윗부분에 『東人詩話卷上』, 하권 제25장 전면 제6행 윗부분에 『東人詩話下』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간 번각본은 상권은 동일하나, 하권은 제25장 전면 제1행 윗부분에 『東人詩話下』로 되어 있다. 또 중간본은 마지막 장인 제26장 후면 4행 하부에 “慶州府重刊”이 있으나 중간 수정본에서는 이필영의 識가 끝난 제26장 전면 마지막 8행에 “甲辰(1664)六月 日慶州府重刊”과 같이 간행시기와 지역을 첨가해 놓았다.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 두 판본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일찍이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도 중간 번각본에 대해 “1939년에 경주부에서 간행된 판본과 내용이나 서체, 판식 등은 다르지 않으나 판형의 치수가 약간 다르고 중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별도의 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5)</sup>고 할 정도였다.

한편 마에마 교사쿠의 옛 소장본을 수장하고 있는 일본의 동양문고본 중에는 洪柱世의 重刊二閑集跋이 첨부된 『동인시화』가 있다.<sup>46)</sup> 곧 5년 전에 중간된 『二閑集』<sup>47)</sup>의 발문이 중간 번각본의 권미에 붙어있는 것이다. 홍주세의 발문<sup>48)</sup>에 따르면, “李厚源(1598~1660)<sup>49)</sup>이 趙涑(1595~1668)에게서 『과한집』과 『보

44) 東洋文庫. 請求記號(VII-4-395).

45) 前間恭作, 『古鮮冊譜』 3: タ-ワ (東京: 東洋文庫, 1957), 1487.

46) 東洋文庫. 請求記號(VII-4-212).

47) 『破閑集』과 『補閑集』.

48) 重刊二閑集跋은 『靜虛堂集』 下에도 수록되어 있음.

한집』을 입수하고, 부사인 嚴鼎耆(1605~1670)<sup>50)</sup>에게 의뢰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발문을 통해, 17세기 중기에 경주에서는 경주부사의 주도로 고려 이후의 시화집을 차례로 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51)</sup>

그렇다면 이보다 5년 뒤에 경주에서 간행된 『동인시화』도 부사의 주도로 간행 되었을 것이다. 1664년 당시의 경주부윤은 李尙逸과 沈世鼎이었다. 이상일은 이 해 7월에 형조참의로 이직하였고, 沈世鼎은 8월 20일에 새로 부임하였다.<sup>52)</sup> 중간 번각본은 이해 6월에 간행되었으므로 이상일의 주도 또는 지원 속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경주에서는 부사의 주도로 고려시대의 두 시화집에 이어 『동인시화』도 다시 간행되었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인시화』는 대부분 이 중간 번각본<sup>53)</sup>이며, 이 판본은 대부분의 국역본과 영인본의 臺本이 되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49) 1659년에는 정월부터 이듬해 죽기까지 병으로 고생한 기록이 보인다. 그러므로 홍주세에게 지시한 것은 이전, 곧 1658년 이전으로 생각된다.

50) “府尹先生案,” 『慶州先生案: 五種』(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274. “府尹嚴鼎耆 嘉義, 戊戌(1658)四月初四日來, 己亥(1659)十月十三日病辭去, 立碑.”

“講武堂先生案” 『慶州先生案: 五種』(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480. “府尹嚴鼎耆, 戊戌四月日到, 己亥六月陞號府尹, 己亥十月日病辭去, 立石.”

『孝宗實錄』8年 12月 21日. “有政. 吏批, 長陵參奉, 李海寬 … 慶州牧使, 嚴鼎耆.”

51) 사본이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아사미문고에 전한다. 아사미문고본은 標題紙에 『東人詩話』라는 서명 아래에 “前間氏所藏本に依り謄寫”와 함께 「淺見」이라는 朱印을 찍어 놓았음.

52) “府尹先生案,” 『慶州先生案: 五種』(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275.

“府尹李尙逸 通政, 癸卯十月初十日, 寧海府使以移差, 甲辰七月, 刑曹參議, 冬至副使, 以適去.” “府尹沈世鼎 通政 甲辰八月二十日來, 乙巳八月初八日, 因弑逆罪人, 經薨事棄歸.”

“講武堂先生案,” 『慶州先生案: 五種』(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481-2).

“府尹李尙逸 癸卯十月寧海府使移拜, 甲辰七月, 移拜刑曹參議, 冬至副使.” “府尹沈世鼎, 甲辰八月日到, 乙巳八月日, 因弑逆罪人, 經薨事棄去.”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2본을 보면 제28장의 후면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인쇄하지 않았다. 한 본(D5B 3A=2)은 상권의 권미제외에도 마지막 문장의 일부인 “易言哉”가 인쇄되지 않았고(이 본에는 “以觀豈不信哉”로 誤寫해 놓았음), 또 다른 후쇄본인 한 본(D5B3D)은 卷尾題 및 “易言哉”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

## 2.5 책판의 망실

선조 9년(1576),<sup>54)</sup> 선조 18년(1585)<sup>55)</sup>에 완성된 『고사촬요』에는 밀양에 『동인시화』 책판이 藏置되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초간 책판은 간행이후 밀양에서 줄곧 보존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1639년에 경주에서 중간본을 간행할 때 이필영은 “찾은 병란으로 남은 것이 거의 없어 민멸될까 두려워 중간”<sup>56)</sup>한다고 하였으므로 초간 책판은 이미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그는 경주부사로 부임하기 9년 전인 인조 8년(1630)에는 한때 초간 책판이 장치되어 있었던 밀양군수<sup>57)</sup>로 재임하였다. 혹 그가 재임 중일 때 밀양에 초간 책판이 있었다면 중간할 때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간 책판은 그 이전에 이미 소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초간 책판이 확인되는 시기와 중간된 시기를 미루어 보면, 이 책판은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1730년경에 완성된 『慶尙道冊板』과 1740년경에 완성된 『冊板置簿冊』에도 『동인시화』 책판이 밀양에 장치되어 있다는 기록은 없다.<sup>58)</sup>

그런데 밀양에 책판이 있었다는 다른 기록이 전한다. 곧 18세기에 완성된 『古書冊板有處攷』<sup>59)</sup>와 『古冊板有處攷』<sup>60)</sup> 등에는 “『東人詩話』 壯紙 三貼拾陸張”과 같이 인출에 76장이 필요하다는 종이 수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현전하는 초간본은 서문 5장, 권상 32장, 권하 34장, 후서 4장 등 모두 75장이다. 비록 1장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일치한다. 이에 비해 중간본은 54장 가량이 필요하므로

54)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31, 69.

55)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111, 156.

56) 李必榮, 識. “東人詩話, 屢經兵燹, 存者無幾, 懼終泯沒, 重刊以壽其傳.”

57) 『仁祖實錄』 8年 6月 23日. “李必榮, 爲密陽郡守.”

58) 『한국의 책판목록』에 수록된 『고서책판유처고』, 『경상도책판』, 『책판치부책』의 밀양에 藏置된 책판의 중수를 대비하면, 『고서책판유처고』에는 『동인시화』 등 15종, 『경상도책판』에는 『점필재집』 1종, 『책판치부책』에는 『점필재집』 등 2종이 수록되어 있는 등 그 차이가 크다.

59)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292.

60)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795.

이 기록은 초간 책판에 대한 기록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필영이 중간할 때 불완전한 원본을 저본으로 이용할 만큼 1639년에도 초간본은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18세기 말기에 그 책판이 보존되고 있었다는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목록들은 각각 1700년경, 1780년에 완성되었으나 현재 확인되는 전본은 1939년에 먹지에 쓴 사본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하겠다. 혹 1585년에 남원에 장치되어 있었다는 책판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sup>61)</sup>

한편 1664년 이후의 『동인시화』 책판의 기록은 대체로 중간번각 책판일 것이다. 이 책판에 대한 기록도 여러 곳에서 보인다. 그중에서 앞선 기록으로는 경주도 호부사 閔周冕이 기유년(1669)에 완성한 『동경잡기』이다.<sup>62)</sup> 또 1730년경에 완성된 『경상도책판』의 경주 조에는 “『東人詩話』一卷七張”<sup>63)</sup>이라고 되어 있다. 중간 번각본은 서문을 포함한 권상이 28장, 권하와 발문이 26장 등 모두 54장이다. 그런데 1권 7장(27장)이라면 양면에 새겨진 책판의 수량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740년경에 완성된 『枋板置簿冊』의 경주 조에는 “『東人詩話』白紙三卷七丈”<sup>64)</sup>과 같이 인출에 필요한 종이 수량이 67장으로 되어 있다. 중간 번각본보다 13장이나 많은 수량이다.<sup>65)</sup> 이후 徐有槩(1764~1845)의 『경외누판』<sup>66)</sup>과 『누판고』<sup>67)</sup>의 경주 조에는 1659년에 간행된 『과한집』과 『보한집』은 있으나 이보다 5년 뒤에 간행된 『동인시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1664년에 간행된 중간번각 책판도 19세기 전반기 이전에 재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1)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101.

선조 18년(1585)경에 전라도 남원에도 『동인시화』 책판이 보인다. 방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이 아쉽다.

62) 閔周冕, 『東京雜記』, 書籍 府藏枋板 (慶州: 慶州府, [1711識]). “破閑集, 補閑集, 東人詩話.”

63)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312.

64)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 보경문화사, 1995), 386.

65)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중간 이후의 책판이 혼재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66) 徐有槩, “『林園十六志』, 『怡雲志』, 『京外鏤板』,” 『한국의 책판목록』 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5), 877.

67) 徐有槩, “『林園十六志』, 『怡雲志』, 『鏤板考』,” 『한국의 책판목록』 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5), 1016-1017.

### 3. 대일본 유출과 간행

#### 3.1 유출경위

『동인시화』가 일본으로 유출되어 간행된 사실은 “조선 학사 李石湖가 기쿠치 고우사이(菊池耕齋, 1618~1682)<sup>68</sup>)에게 증여함으로써 왜관으로 간행되었다.”<sup>69</sup>)는 기록에서 확인이 된다. 석호는 효종 6년(1655)에 조선통신사<sup>70</sup>)의 讀祝官(製述官)으로 일본에 갔던 李明彬의 號다. 기쿠치 고우사이는 통신사들이 교토(京都)의 혼코쿠지(本國寺)에 머물 때 館伴을 맡고 있었다. 당시 이명빈은 그와 교류하면서 그의 재능에 매우 감탄하고, 그의 저작집인 『耕齋集』의 서문을 부탁받자 “大海以東第一等之人”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한다.<sup>71</sup>) 이렇게 『동인시화』의 대일본 유출은 1655년에 조선통신사의 일원이었던 이명빈이 일본의 기쿠치 고우사이에 개인적으로 증여한 것이었다.

#### 3.2 간행과 저본

『동인시화』는 일본에서 2회 간행<sup>72</sup>)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貞享 4년(1687) 간본이다. 이후 1687년 간본에 대해 『일본시화총서』에 수록된 『동인시화』 해제에서 (“『동인시화』는) 성종 5년(1474)에 초간, 인조 17년(1639)

68) 菊池鵬溟, 識([江戸]: 日野屋書助, 1687). “菊池氏名勻, 字東勻, 號耕齋.”

69) 長澤規矩也, 阿部隆一 [共編], “倭板書籍考,” 『日本書目大成』 第3卷 (東京: 汲古書院, 1979), 54. “朝鮮ノ學士李石湖ヨリ菊池東勻ニ贈倭板ニ出タリ.”

菊池鵬溟, 識([江戸]: 日野屋書助, 1687). “明曆乙未歲, 朝鮮信使來朝, 學士李明彬 … 而吾與子, 相識之贈也.”

70) 『孝宗實錄』 6年(1655) 4月 20日. “日本通信使趙珩, 副使兪瑒, 從事官南龍翼辭朝, 面諭以遣之.”

71) 松田甲, “東人詩話の繚刻,” 『續日本史話』: 第2編 (京城: 朝鮮總督府, 1931), 159.

72)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일인들이 주도한 조선고서간행회에서 『과한집』 등과 함께 합책으로 간행된 신활자본을 1회로 보는 것 같다. 이 활자본의 대본은 아사미 린타로우(淺見倫太郎) 소장본이다(釋尾春苒, 『朝鮮古書解題』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에 중간되었다. 일본에서 간행된 것은 명력 원년(1655)이니 중간된 지 16년이 지나서였다.”<sup>73)</sup>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1655년에 간행되었다는 해설에 대해 1655년은 기쿠치 고우사이가 『동인시화』를 처음 입수한 해이지 간행한 해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sup>74)</sup> 곧 일본간본은 1655년에 이명빈이 기쿠치 고우사이에게 증여한 책을 저본으로 삼아, 그의 셋째 아들인 기쿠치 호우메이(菊池鵬溟, 1659~1720)<sup>75)</sup>가 1687년에 2권4책<sup>76)</sup>으로 간행한 것이었다.<sup>77)</sup> 행자수는 전책에 걸쳐 9행17자인데, 1행 당 17자는 초간본의 본문형식과 동일하다.

일본간본 『동인시화』는 『일본시화총서』의 제5책에도 신활자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편성과 간행의 주역들은 일본간본에 없는 1639년의 이필영의 발문까지 함께 수록해 놓았다.<sup>78)</sup> 그 근거는 당시 유통되던 『동인시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인 1639년 간행의 아사미 린타로우(淺見倫太郎)의 옛 소장본에 이필영의 발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일본 목판본은 이필영의 중간 이후에 입수된 책을 저본으로 삼아 간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간본이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중간본의 권미에 있었던 이필영의 발문도 함께 수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간본의 저본은 중간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문을 포함한 네 편의 글의 편성에서 알 수 있다. 곧 일본간본은 중간본과는 달리 강희맹의 서문 등 4편의 글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고, 초간본과 같이 앞뒤에 각 2편씩 편성되어

73) “東人詩話 外,” 『日本詩話叢書』: 제5책 (東京: 文會堂書店, 1920-22), 453-454.

74) 『東人詩話 外』 일본간본 권말의 菊池鵬溟의 識에서 보듯이 정항 4년(1687)에 菊池耕齋(東勻)의 아들인 鵬溟에 의해 간행되었다. 다음 글이 참고가 된다.

靑山仙客, “朝鮮의 活字와 珍書,” 『每日申報』 (大正5(1916)年 11月 2日).

山口正之, “徳川時代に於ける朝鮮書籍の翻刻,” 『文教の朝鮮』 No.9(朝鮮教育會, 1929), 55.

松田甲, “東人詩話其他二三の翻刻本に就て,” 『文教の朝鮮』 No.11(朝鮮教育會, 1929), 146.

松田甲, “東人詩話の翻刻,” 『續日本史話』: 第2編 (京城: 朝鮮總督府, 1931), 162.

75) 鵬溟은 그의 별호이고, 이름은 搏 또는 武雅, 字는 九萬 또는 子師. 통칭은 舍人.

76) 長澤規矩也, 阿部隆一 [共編], “倭板書籍考,” 『日本書目大成』 第3卷 (東京: 汲古書院, 1979), 54. “二卷四本ニ分ツ.”

77) 菊池鵬溟 識. 東人詩話([江戸]: 日野屋書助, 1687). “貞享丁卯(1687)四月望日, 鵬溟原搏九萬甫.”

78) “東人詩話 外,” 『日本詩話叢書』: 제5책 (東京: 文會堂書店, 1922), 560 眉註. “此跋, 從善本, 抄載.”

있다. 물론 이필영의 발문은 수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편의 글이 온전하고 각 2편씩 나누어 편성된 사실만으로도 저본은 초간본 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필영의 글에서는 원본의 잘못된 곳을 자못 바로잡았다고 하였으나 일본간본과 대교하니 문자의 異同은 다소 있으나 바로 잡은 곳은 보이지 않는다.”<sup>79)</sup>고 한 지적도 실은 저본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초간본과 중간 수정본 그리고 일본간본의 동질성과 계통성을 살피기 위해 세 판본의 文字異同處를 대비하니 <표 1>과 같이 122곳에 걸쳐 나타났다. 이 중에서 초간본과 일본간본이 동일한 경우(★표시)는 49곳이나 중간 수정본과 일본간본이 동일한 경우(☆표시)는 11곳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문자의 이동을 대비해보아도 일본간본의 저본은 초간본 계통임이 확인된다. 더욱이 중간본에서 보완하거나 체재를 달리한 3곳, 곧 “靑天和 皎如사이에 重押二天字 첨가”, “於李乎 뒤의 細註첨가”, “讀書 … 舉 등 15자를 세주로 변경” 등이 초간본과 동일하게 “靑天皎如”, “於李乎”, “讀書 … 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인시화』가 일본에 증여된 시기로 보아 중간본이 저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견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는 셈이다.<sup>80)</sup>

<표 1> 초간본, 중간수정본,<sup>81)</sup> 일본간본의 文字異同處 대비<sup>82)</sup>(1)

차례	위치 <sup>83)</sup>	초간본	중간 수정본	일본간본	차례	위치	초간본	중간 수정본	일본간본
1	1-후-4(강)	甲午	좌동	午	30☆	13-전-2	誰	雖	雖
2	2-전-8(강)	斯馬斯臧	思馬斯臧	思馬斯徂	31	14-전-5	白贊	좌동	白贊
3	2-후-8(강)	倣	좌동	倣	32☆	14-전-5	琉璃	琉璃	琉璃
4★	4-후-4(김)	所及	所可	所及	33	16-후-9	其藁	其藁	藁

79) 東人詩話解題, 『日本詩話叢書』: 제5책 (東京: 文會堂書店, 1922), 2. ;

松田甲, “東人詩話의 繙刻,” 『續日本史話』: 第2編 (京城: 朝鮮總督府, 1931), 160.

80) 1585년 간행의 『고사촬요』에 수록된 남원의 동인시화 책판의 판본은 전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혹 이 판본이 발견된다면 일본간본과의 관계도 다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81) 중간 수정본은 김수온과 양성지의 글이 분리되어 전 책에 걸쳐 완전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본을 선정하였음.

82) 대비(I)는 강희맹의 서문 등 4편과 권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차례 뒤의 ★표시는 초간본과 일본간본이 동일한 경우이고, ☆표시는 초간본과 중간 수정본이 동일한 경우이다.

차례	위치 <sup>83)</sup>	초간본	중간 수정본	일본간본	차례	위치	초간본	중간 수정본	일본간본
5	4-후-8(김)	所貶	좌동	貶	34	16-후-10	大同江	좌동	大東江
6	5-후-3(김)	紀元之	좌동	紀元三	35★	17-전-10	軻書	鄒書	軻書
7	2-후-2(최)	不求	좌동	求	36★	18-전-7	白老	白醉	白老
8	3-전-6(양)	大平	좌동	太平	37	18-후-6	達全	좌동	達令
9★	1-전-10	價客	賈客	價客	38	18-후-7	全	좌동	令
10☆	2-전-4	楊州	揚州	揚州	39★	18-후-8	小	少	小
11☆	2-후-3	直	眞	眞	40	19-전-3	奈	좌동	乃
12★	3-후-7	柳色深	柳色陰	柳色深	41	19-전-6	埒者	좌동	將者
13★	3-후-9	雪片	雪花	雪片	42★	19-후-5	顛	巔	顛
14★	6-전-4	未有	未聞	未有	43	20-전-1	樂詞	좌동	樂謠
15★	6-후-6	青天皎如	青天重押二 天字皎如	青天皎如	44	20-전-5	北	좌동	比
16	7-전-1	有之獨何	좌동	有用之何	45	22-전-10	云	좌동	元
17★	7-전-2	於李乎	於李乎 (細註) <sup>84)</sup>	於李乎	46★	22-후-10	但	且	但
18	7-전-5	白贊	좌동	白費	47★	23-전-6	煉格煉句 煉字	鍊鍊格鍊 句字	煉格煉句 煉字
19★	7-전-6	阻江詩	祖江詩	阻江詩	48★	24-전-3	頃	須	頃
20★	7-전-6	小舟	小船	小舟	49★	24-전-5	儘	信	儘
21	7-전-10	政丞	좌동	政承	50★	26-후-3	錯	鑿	錯
22	8-전-1	一回	좌동	一面	51	27-전-4	古人詩	좌동	古之詩
23	8-전-6	寧王	좌동	靈王	52	27-전-5	警語	좌동	驚語
24	9-전-2	儻從	좌동	僕從	53	28-전-2	歷觀	좌동	觀歷
25★	10-후-7	商岩四老	商君四老	商岩四老	54	28-전-3	祇	좌동	祇
26	11-전-9	雨	좌동	兩	55★	28-전-4	宋	唐	宋
27	12-전-4	微杜	좌동	微微	56★	29-후-7	止齋	正齋	止齋
28★	12-후-2	大高	太高	大高	57★	30-전-2	小婦	少婦	小婦
29★	12-후-3	大細	太細	大細	58	31-후-2	詩荀	좌동	詩句

『일본시화총서』에 수록된 『동인시화』에서는 일본간본과 중간본을 대비하여 문자의 異同 이 있을 경우, 해당 원문의 윗부분에 작은 자로 수록해 두었는데 내용이 부족하고 오류도 보인다. 국내에서도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자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곧 남건희는 “동인시화의 서지적 고찰”에서 초간본과 중간본의 대교(388-389)에서 서문 9곳, 본문 40여 곳 등을 밝혀 놓았고, 임재완은 “동인시화의 해제”(101-102)에서 “중간본에서 초간본의 오자를 바로잡은 것이 8곳에 8자, 오히려 잘못 고친 곳이 3곳에 3자, 초간본의 결락자나 위치를 고친 부분이 2곳”이라고 하였다.

83) 위치는 초간본의 張數-前後面-行數임.  
 강·김·최·양은 강희맹의 동인시화서, 김수온의 서, 최숙정의 동인시화후서, 양성지의 서동인시화후.  
 84) “謹按 … 以俟知者云.”의 5행 細註.

<표 1> 초간본, 중간수정본, 일본간본의 文字異同處 대비(II)<sup>85)</sup>

차례	위치	초간본	중간 수정본	일본간본	차례	위치	초간본	중간 수정본	일본간본
59★	2-후-1	攙	좌동	攙	91★	20-전-1	閑	閒	閑
60★	3-전-9	可怕	可惜	可怕	92	20-전-9	潤州	좌동	潤州
61★	3-후-8	模糊	糶糊	模糊	93	20-후-7	胸中	좌동	腦中
62	7-후-3	驚人	좌동	驚人	94	20-후-9	古護	좌동	古護
63★	9-전-3	璵	嶼	璵	95	20-후-9	直	좌동	宜
64	9-후-8	其晚也 〃	좌동(其晚也其晚也)	其晚也	96	21-전-1	峻壯	좌동	峻狀
65★	9-후-10	淺	踐	淺	97	22-전-5	全	좌동	金
66★	10-전-5	金久爛	金久罔	金久爛	98	23-전-3	英資	좌동	英質
67	10-전-8	古意	좌동	意	99	23-후-3	星山	좌동	里山
68	11-전-6	元帥	좌동	元帥	100★	23-후-3	寢	枕	寢
69★	12-전-7	湖	胡	湖	101	24-전-9	情境	좌동	情憶
70☆	12-전-7	郎官	郎官	郎官	102	24-후-8	直殿	좌동	眞殿
71☆	12-후-5	獨公	獨谷 <sup>86)</sup>	獨谷	103	24-후-9	鄴烟	좌동	銜烟
72☆	13-전-5	大平	太平	太平	104	24-후-9	拖靑雨	좌동	把靑雨
73★	13-후-7	犯濫	汎濫	犯濫	105★	25-전-10	嘗	常	嘗
74★	14-후-6	刻	劾	刻	106	26-전-5	吳鍊	좌동	吳鍊
75★	15-후-4	飛土	飛上	飛土	107★	26-전-5	濕	襲	濕
76	15-후-10	泰齋	좌동	泰齋	108★	27-후-1	不可不知	不可不知已	不可不知
77	16-후-2	太半	좌동	大半	109★	27-후-3	慰	賀	慰
78	17-전-10	暗合	좌동	脂合	110★	27-후-8	庚午	庚辰	庚午
79☆	17-후-4	郎	郎	郎	111★	28-전-10	梵峪	梵峪	梵峪
80★	17-후-6	客意	俗意	客意	112	29-전-9	直前	좌동	眞前
81☆	18-전-5	承相	丞相	丞相	113★	29-후-9	矻	眨	矻
82★	18-전-5	淒涼	悽涼	淒涼	114	30-전-3	閱判事	좌동	閱判司
83	18-전-10	猶	좌동	獨	115★	30-전-7	讀書…舉(15字)	[細註로變更]	讀書…舉(15字)
84☆	18-전-10	承相	丞相	丞相	116★	30-후-4	晨	辰	晨
85	18-후-8	孟	좌동	蓋	117	31-후-5	識	좌동	諱
86	18-후-10	李薛	좌동	李薛	118☆	31-후-6	落第時	落第詩	落第詩
87	19-전-6	沃川	좌동	汝川	119	31-후-9	識	좌동	諱
88★	19-후-3	長橋	長株	長橋	120	32-전-1	耶	좌동	也
89	19-후-5	名宦	좌동	名宦	121	33-후-5	朴贊成	좌동	朴贊成
90	20-전-1	衙	좌동	衙	122★	34-후-3	欄街	欄街	欄街

85) 대비(II)는 권하를 대상으로 함.

86) 成石璘(1338~1423)의 號.

이렇게 일본간본의 저본이 초간본 계통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간본인지 사본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런데 앞의 장에서 1639년의 중간본의 저본도 사본이었을 여러 정황을 들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초간본을 2~30년 후에 통신사의 일원이 입수해 갔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또한 저본이 사본이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도 있다. 첫째, <표 1>의 문자이동처 대비에서 보듯이 초간본과 다른 문자는 필사했을 때 자형이 유사하여 오판독 가능성이 높은 문자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최숙정의 후서 중에서 “聖朝”를 초간본과 같이 改行하지 않고 間字형식으로 한 점,<sup>87)</sup> 셋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서체로 새겨진 초간본의 글과는 달리 4편 모두 9행17자로 완성시킨 점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간본별 서문 등 4편의 행자수 대비

구분	초간본	중간본	중간 수정본	중간 번각본	일본간본
강희맹 (東人詩話序)	8행14-16자	12행20자	12행20자	12행20자	9행17자
김수온 ([序])	8행13-16자 (무계)	12행20자	12행20자	12행20자	9행17자
최숙정 (東人詩話後序)	8행15자	[12행20자]	12행20자	12행20자	9행17자
양성지 (書東人詩話後)	7행12자	없음(김수온의 서와 합성)	12행20자	없음 (김수온의 서와 합성)	9행17자

그리고 초간본과 중간본이 동일한 경우, 바꾸어 말하면 일본간본이 조선본과 다른 경우는 <표 1>에 따르면 61곳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贊”과 “費”와 같이 유사하게 보이는 문자를

87) 崔淑精, 東人詩話後序. “盛於高麗, 極於[間字]聖朝.”

한편 이와 유사한 다른 곳은 改行(강희맹의 서, “新羅文昌下逮(改行)本朝”) 또는 間字(권상 제1편의 “我(間字)太祖潛邸”)와 같이 초간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최숙정의 후서 중의 이 부분은 개행(초간본)이 간자(일본 목판본) 형식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초간본이 아닌 초간본 계통의 사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誤判讀한 경우,<sup>88)</sup> 둘째는 “承”과 “丞”과 같이 통용자인 경우, 셋째는 “思馬斯徂”와 같이 저본인 조선본에 이미 수정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간행당시 수정한 경우<sup>89)</sup> 등의 유형이다.

## 4. 판본의 특징과 기타 간본

### 4.1 서지적 특징

일제강점기 이후 신활자본, 영인본 등 많은 판본이 간행되면서 『동인시화』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臺本이나 판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오히려 혼란을 준 점도 없지 않았다. 곧 日人들의 조사와 해제는 믿을 바 못되었고, 이후 국내에서 간행된 영인본과 국역본도 대본조차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판본들의 서지적 특징을 대비하여 一瞥하면 <표 3>과 같다.

88) 이외에도 “之”와 “三”, “倣”과 “做”, “大”와 “太”, “直”과 “眞”, “回”와 “面”, “儻”과 “僕”, “雨”와 “兩”, “奎”과 “令”, “北”과 “比”, “詞”와 “詞”, “云”과 “元”, “人”과 “之”, “驚”과 “警”, “帥”와 “師”, “齊”와 “齊”, “猶”와 “獨”, “孟”과 “蓋”, “衙”와 “衛”, “薛”과 “節”, “沃”과 “汨”, “胸”과 “腦”, “鑊”와 “護”, “直”과 “宜”, “境”과 “憶”, “拖”와 “把”, “練”과 “鍊”, “耶”와 “也” 등 대부분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9) 강희맹의 서문 중에 『詩經』 魯頌에서 인용한 이 구절의 전문은 “駟駟牡馬, 在坰之野, 薄言駟者, 有駟有駟, 有驪有魚, 以車祛祛, 思無邪, 思馬斯徂”이다. 『詩經』에 나오는 이 문구가 誤字라는 사실은 약간의 학식을 갖춘 학자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빈이 증여한 책에 이미 수정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菊池鵬溟이 識에서 “校讎하고 訓點하여 간행하였다.”(“乃爲校讎訓點, 出而刊之”)고 하였으므로 간행당시 수정되었을 것이다.

<표 3> 『동인시화』 국내외 판본의 서지적 특징 대비

구분	초간본	중간본	중간 수정본	중간 번각본	일본간본
서문 등 4편의 편차	권두: 동인시화서 (강희맹)- [서](김수온)  권미: 동인시화후 서(최숙정)-서 동인시화후(양성 지)	권두: 동인시화서 (강희맹)-동인 시화후서(최숙 정)-서동인시화 후(김수온)	권두: 동인시화서 (강희맹)-동인 시화후서(최숙 정)-서동인시화 후(양성지- [서](김수온)	중간본과 동일	초간본과 동일
권미제 및 위치	상권 제32장 후면 제1행 상부(東人 詩話卷上), 하권 은 없음	상권 제28장 후면 제7행 상부(東人 詩話卷上), 하권 제25장 전면 제6행 상부(東人詩話下)	중간본과 동일	상권 하권 제25장 전면 제1행 상부 (東人詩話下)	상권 제35장 후면 마지막 행(東人詩 話卷上終), 하권 제28장 후면 마지 막 행(東人詩話卷 下終)
판식	사주단변, 유계, 반엽10행17자, 내향흑어미	사주단변, 유계, 반엽12행20자, 내향2엽화문어미	중간본과 동일	중간본과 동일	사주단변, 무계, 반엽9행17자, 무어미
간년 근거	成化紀元之十三 年(1477)後二月 南原梁誠之純夫 謹跋	崇禎己卯(1639) …李必榮識  慶州府重刊	중간본과 동일	崇禎己卯(1639) …李必榮識 甲辰(1664)六月 日慶州府重刊	貞享丁卯(1687) 四月望日

## 4.2 기타 간본

『동인시화』는 영인본, 국역본 등의 형태로 단독 또는 합본 형식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이들을 간행형식과 출판사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단행 영인본의 형식으로는 이우(1980)<sup>90)</sup> 경문사(1980), 민족문화(1980), 충북대학교(1981), 보경(1984) 등이 있고, 합본 형식으로는 조선고서간행회(『조선고서대계』 제19책,

90) 국내영인본(이우, 다운샘)의 대본은 1664년 경주중간본의 번각본이다. 권상하의 마지막 장의 “東人詩話卷上終”(제29장 전면 제12행 상부)과 권하의 마지막의 “東人詩話卷下終”(제25장 전면 제12행 상부)는 필사하여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권하의 마지막 장의 판심에는 권차를 착오하여 “東人詩話上”과 같이 필사해 놓았다. 그런데 1664년에 간행된 중간번각본의 마지막 장에는 판심제가 없다.

1911), 경북대학교 국문학회(간년미상), 오성사(『徐四佳全集』, 1980), 태학사(『한국시화선』, 1981), 동서문화원(『한국시화총편』 제1책, 1989) 등이 있다. 또 단행 역주본의 형식으로는 학우사(장홍재 역, 1980), 형설(박성규 역, 1982), 집문당(박성규 역, 1998), 월인(이월영 역, 2000), 다운샘(권경상 역, 2003)과 선별 역본인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김찬순 역, 1966)<sup>91)</sup> 등이 있고, 합본역주 형식의 이회(『四佳名著選』, 성백효 역, 2000) 등도 있다. 이 간본들은 초간본을 대본으로 한 동서문화원의 것을 제외하고는 중간본과 중간 번각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한편 『원전대조 동인시화』의 국역대본은 “이필영의 지문이 실려 있지 않은 중간본을 저본”<sup>92)</sup>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나 판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나 소장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대본은 이우에서 간행한 영인본 『동인시화』<sup>93)</sup>의 대본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곧 김수온과 최숙정의 글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권상의 제10장에 있는 이필영의 세주 5행의 有無<sup>94)</sup>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 5. 결 언

『동인시화』의 간행은 밀양의 초간본(1477), 경주의 중간본(1639), 경주의 중간 수정본(1639~64), 경주의 중간번각본(1664) 등 전후 4회 있었다.<sup>95)</sup> 이들 중에서 초간본은 밀양부사였던 박시형, 중간본은 경주부사였던 이필영이 간행을 맡았던 기록이 남아 있다. 나머지도 간행 시기로 보아 중간 번각본은 당시의 경주부사였던 李尙逸, 오류와 결판된 3장을 수정 보충한 중간 수정본도 간행 당시의 경주부

91) 김찬순 역, 『동인시화』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66).

강희맹의 서문만 앞에 수록하고, 본문은 활자로 축약하여 수록해 놓았음.

92) 권경상 역주, 『원전대조 동인시화』 (서울: 다운샘, 2003), 9.

93) 동악어문학회 편, 『동인시화』: 국어국문학자료총서 2 (서울: 이우, 1980).

94) 이우출판사 간행의 『동인시화』에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영인한 탓에 마치 원래 없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95) 확인하기 어려운 16세기 후반에 전라도 남원에서 보존되던 판본은 제외하였음.

사가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본을 간행한 이필영에 따르면, 초간본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거의 燒失되었기 때문에 간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저본으로 삼은 책은 오류가 있는 사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보니 강희맹, 김수온, 최숙정, 양성지의 글 중에서 김수온과 양성지의 글이 합성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후 오류를 발견하고 중간 수정본에서는 이를 바로 잡았다. 비록 수정한 분량은 몇 장에 지나지 않지만 이전의 오류를 수정하여 완전한 판본을 갖추게 된 가치가 적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간 수정본으로 일컫고, 별도의 판본으로 보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향후 판본상의 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본다. 이후 다시 중간본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중간 번각본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후대에 많이 보급되었고, 대부분의 영인본과 국역본의 臺本이 되었다.

한편 1655년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간 이명빈은 滯日당시 함께 교류하던 기쿠치 고우사이(菊池耕齋)에게 지니고 있던 『동인시화』를 증여하였고, 그의 아들인 기쿠치 호우메이(菊池鵬瀛)는 1687년에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 서적 중에서 개인적으로 일본인에게 증여되어 간행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초간본 이후 각 판본의 간행과 개략적인 차이, 책판의 소재, 대일본 유출과 일본 목판본의 간행과 저본 계통 등을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초간본의 권두에는 강희맹의 “동인시화서”와 김수온의 “서”가 있고, 권미에는 최숙정의 “동인시화후서”와 양성지의 “서동인시화후”가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639년 중간당시 불완전한 사본을 원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김수온의 “서”와 양성지의 “서동인시화후”가 한 편의 글로 합성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초간본에 수록된 네 편의 글들은 각기 서체가 전혀 다르고 행자수도 달랐기 때문에 간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오류이다.

둘째, 간행이후 이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자 두 사람의 글을 분리하여 권두에 편성한 중간 수정본이 간행되었다. 중간 수정본은 중간본의 오류부분만 다시 새겨 대체하고, 나머지는 중간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새긴

판본은 다른 장에 비해 인쇄상태가 좋고, 서체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된다.

셋째, 중간 번각본은 『과한집』, 『보한집』 등의 시화집을 계통적으로 간행하던 경주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간행의 주역은 당시 경주부사인 李尙逸으로 추정된다. 중간본이 간행된 지 25년 만에 다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은 목판의 보존 특성으로 보아 이전 책판이 재난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도 몇 장은 약간의 보완 또는 손질을 하여 간행한 흔적이 보인다.

넷째, 초간 책판은 1585년에 완성된 『고사촬요』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행이후 밀양에서 줄곧 보존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639년에 중간되었으므로 이 책판은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664년 이후의 책판의 藏置에 대한 기록은 중간 번각책판에 해당한다. 1669년의 『동경잡기』와 1730년경의 『경상도책판』에는 책판의 장치사실이 보이나 徐有集(1764~1845)의 『누판고』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책판은 19세기 전반기에는 모두 산일되었거나 재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조선통신사의 일원이었던 이명빈이 1655년에 일본의 기쿠치 고우사이(菊池耕齋)에게 『동인시화』를 증여함으로써 일본에서도 간행되었다. 그런데 일본간본은 강희맹의 서문 등 네 편의 글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고, 앞뒤에 각 두 편씩 편성된 방식도 초간본과 동일하다. 또 초간본과 일본간본의 문자이동을 대비해보아도 초간본과는 49곳이 동일한데 비해 중간본과는 11곳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중간본에서 보완하거나 체재를 달리한 3곳 역시 초간본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저본은 초간본 계통이 분명하다. 그런데 국내에서 거의 燒失된 초간본을 이명빈이 입수해 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또 여러 서지적인 특징을 볼 때 저본은 간본이 아니라 사본이었음이 분명해진다. 곧 초간본 계통의 사본이었던 것이다.

여섯째, 일제강점기 이후 간행된 영인 국역본들은 일부가 중간본을 대본으로 삼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 번각본을 이용하였다. 그 중에는 영인하면서 원본을 약간 변형해놓아 異本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전본은 중간 수정본을 포함해도 네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본이나 중간 번각본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다. 臺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강희맹의 서문 등 네 편의 편성체제, 권미제와 위치, 판식, 간년추정의 근거 등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徐居正. 『東人詩話』. 初刊本, 密陽: 朴時衡, 1477.  
『東人詩話』. 重刊本, 慶州: 李必榮, 1639.  
『東人詩話』. 重刊修訂本, [慶州]: [未詳], [1639-64].  
『東人詩話』. 重刊飜刻本, 慶州: [李尙逸], 1664.  
『東人詩話』. 日本木版本. [江戸]: 日野屋書助, 1687.
- 權文海. 『大東韻府群玉』(『大東韻府群玉纂輯書籍目錄』).
- 閔周免. 『東京雜記』. 重刊本. 慶州: 慶州府, [1711識].
- 徐有榘. 『林園十六志』(『怡雲志』).
- 박성규. 『동인시화』. 서울: 집문당, 1998.
- 김찬순 역. 『동인시화』.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66
- 권경상 역주. 『원전대조 동인시화』. 서울: 다운샘, 2003.
- 釋尾春苒. 『朝鮮古書解題』.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前間恭作. 『古韻冊譜』 第3卷. 東京: 東洋文庫, 1957.
- Maurice Courant ; 李姬載 譯. 『韓國書誌』. 서울: 一朝閣, 1994.

### [논문]

- 김건근. “高麗時代의 逸失 詩話·詩評集 考察 - 雜書, 續破閑集, 東國文鑑을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2004).
- 남권희. “『東人詩話』의 書誌의 考察.” 『서지학연구』 제8집(1992. 12).

- 임재완. “동인시화 해제.” 『계간서지학보』 제18집(1996. 9).
- 조중업. “동인시화 연구.” 『大東文化研究』 제2집(1966. 6).
- 박성순. “四佳 徐居正의 詩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90.
- 한인석. 徐居正文學 研究: 『東人詩話』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89.
- 山口正之. “德川時代に於ける朝鮮書籍の翻刻.” 『文教の朝鮮』 No.9(1929).
- 松田甲. “東人詩話其他二三の翻刻本に就て.” 『文教の朝鮮』 No.11(1929).
- 松田甲. “東人詩話の翻刻.” 『續日本史話』: 第2編. 1931.
- 靑山仙客(德富蘇峰). “朝鮮의 活字와 珍書.” 『每日申報』(1916年 11月 2日).
- 張伯偉. “東人詩話與宋代詩學: 以文獻出典爲中心的比較研究.” 『詩話學』 第5-6合集(2004).

[원전 및 자료]

- 『仁祖實錄』.
- 『孝宗實錄』.
- 『增補文獻備考』 卷246. 藝文考5. 雜纂類.
- 『慶州先生案: 五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해제집』 2.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9.
- 『동인시화』 (국어국문학자료총서 2). 서울: 이우, 1980.
- 『동인시화』. 서울: 경문사, 1980.
- 『조선군서대계』 제19집. 경성: 조선고서간행회, 1911.
- 『한국시화총편』 제1권. 서울: 동서문화원, 1989.
- 정형우,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상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別本東人詩話』(『域外漢籍珍本文庫』: 第2輯 集部. 第34冊). 重慶: 西南師範大學, 2011.
- 『倭板書籍考』(『日本書目大成』 第3卷). 東京: 汲古書院, 1979.
- 『日本詩話叢書』 第5冊. 東京: 文會堂書店, 1922.

書誌學研究 第59輯(2014. 9)

『문화재청』.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학자료포털』. <<http://www.kostma.net/>>.